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22.07 [22~26]

(가)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七月)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
 럽구나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뒀 불어
 배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空)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萬樹) 천림(千林)을 꾸며 내는구나
 앞 여울 가려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건가
 산옹(山翁)의 이 ㉠ 부귀(富貴)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잠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소선 적벽: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 한기: 책.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썼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썼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면서 허유가 핑계하고.
 * 조장: 기계 있는 품행.

(나)

㉠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 하오리라

〈제1곡〉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떠던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다)

윤상군이 처음에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편과 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거기에서 정자를 짓고 **울정(栗亭)**이라고 이름했다. 그 후에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안에 있는 집에서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적은데, 윤공은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는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 가지 사이가 성글어서 그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먹을 만하며, 겨울이면 밤송이를 모아 아이궁이에 불을 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를 좋아한다.”

나는 말한다.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룰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풀이나 나무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가지각색인데, 오직 이 밤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늦게 나며, 재배하기도 어렵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흐드러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밤나무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등용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밤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웠으니, 이것은 밤나무의 꽃과 열매의 성질과 같은 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대개 식물의 씨앗이 흠에서 싹틀 때 깊으면 싹이 더디 터진다. 꼬투리가 터지면 곧 눈이 트고, 눈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싹물이 웅덩이에 차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다. 그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고, 고이면 못이 되었다가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멈추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은 보낼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을 숭상하면 불을 닦고 물을 숭상하면 물을 닦으니 나와 숭상하는 사물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성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신의 양생의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울정설(栗亭說)」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용'과 '학'을 떠올리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② [B] : '팔월 보름달'을 '소년 적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달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민 것 같다고 표현하며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④ [D] : '늪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E] :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 ③ ㉠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은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4.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활동 과제 : '나'가 말한 내용이 윤상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말한 내용		활동 결과
물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	⇒	㉠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	㉡
잎이 매우 늦게 돌지만, 돌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	㉢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	⇒	㉣
밤나무의 성장함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	⇒	㉤

- ① ㉠ : 윤상군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② ㉡ : 윤상군이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③ ㉢ :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 윤상군이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④ ㉣ : 등용된 윤상군이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⑤ ㉤ :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은퇴하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화자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곧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 ①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며 '늪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면서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말하는 화자를 통해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망기'하고 싶다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물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삶의 터전인 '어촌'을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울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였음에도 등용이 늦었던 인물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청강 녹초변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석양이 지는 저녁으로, 아이들이 피리를 불자 물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고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반공에 솟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화자가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기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秋七月)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뜬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럽구나
* 소선 적벽: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적벽부에서는 가을 음력 칠월이 좋다고 말하지만 화자는 화자는 음력 팔월 보름달을 모두 칭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이 야단스럽다는 말을 통해 팔월의 달이 그만큼 아름다워 잡고 싶을 정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뒀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空)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萬樹) 천림(千林)을 꾸며 내는구나
앞 여울 가려 열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건가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있을세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번에는 겨울의 눈오는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눈이 온 날의 풍경을 마치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낸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살고있는 산골의 '부귀'를 남에게 알리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즐기고 있는 자연을 '부귀'로 표현한 것으로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납니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세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엿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잠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한기: 책.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씻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면서 허유가 핑계하고.

* 조장: 기개 있는 품행.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산중에서 홀로 책을 쌓아두고 과거의 인물들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현과 호걸이 많고 많음을 생각한 화자는 하늘이 무심할 리가 없음에도 시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허유의 고사를 인용하여 허유의 소박하고 기개 있는 품행을 예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사를 떠올리며 세상사에서 오는 시름을 잊기 위해 술을 기울인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화자가 자연 지향적인 태도와 속세 지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자신이 있는 곳의 자연과 주변 풍경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정도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시입니다.

(나)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곡>

*망기 :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제1곡>에서는 부귀든 빈천이든 큰 상관이 없다는 화자의 사고가 드러납니다. 또한, '백구'라는 주변 대상에게 '날지 마라'고 명령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백구를 자신과 함께 속세의 욕심을 잊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임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뗏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제6곡>에서는 어촌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릉'과 같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는 시인의 사고가 반영된 부분으로, 어촌과 같은 속세에서 떨어진 세상에 대한 화자와 시인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가)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짧게만 등장한 시입니다. <제1곡>에서는 부귀와 빈천 모두 크게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며 속세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6곡>에서는 어촌의 풍경을 예찬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다)

윤상군이 처음에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편과 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거기에서 정자를 짓고 울정(栗亭)이라고 이름했다. 그 후에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안에 있는 집에서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적은데, 윤공은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는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 가지 사이가 성글어서 그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먹을 만하며, 겨울이면 밤송이를 모아 아궁이에 붙을 땀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를 좋아한다.”

나는 말한다.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풀이나 나무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가지각색인데, 오직 이 밤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늦게 나며, 재배하기도 어렵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흐드러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밤나무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밤나무'에 대한 긍정적인 특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는 가장 늦게 나고, 재배하기 어려우며 기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고,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 시작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드는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밤나무의 장점은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등용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밤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웠으니, 이것은 밤나무의 꽃과 열매의 성질과 같은 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대개 식물의 싹이 흙에서 싹틀 때 깊으면 싹이 더디 터진다. 꼬투리가 터지면 곧 눈이 트고, 눈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다. 그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고, 고이면 못이 되었다가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멈추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은 보탬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을 숭상하면 불을 닦고 물을 숭상하면 물을 닦으니 나와 숭상하는 사물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성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신의 양생의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울정설(栗亭說)」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글쓴이가 밤나무를 언급한 이유는 윤공이 밤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공은 글쓴이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 늦은 나이에 벼슬에 나아가 대신의 지위까지 올라간 인재입니다. 글쓴이는 이것이 마치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알아서 자라난 밤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로, 식물의 싹이 틀 때는 더디게 터지지만 터지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가지가 생기고 줄기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예시가 반복되며 화자가 윤공이 성공한 대신이 된 이유를 자연에 빗대어 찾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작품 총평

기본적으로 수필의 형식을 따르는 글입니다. 하지만, 통념을 깨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늦게 시작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부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을 글쓴이는 자연의 이치를 예시로 들며 늦게 시작하더라도 성장하여 성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석양', '보름달'과 같은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도 '해 저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 (나)와 (다) 모두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경우 <제6곡>에서 어촌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가), (나), (다)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가)에는 '녹초면', (나)에는 '백구'와 같은 색채어의 활용이 드러나지만, (다)에는 색채어의 활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려면 우선 명확하게 화자가 있는 공간이 드러나야 하는데, 세가지 시 모두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A]: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용'과 '학'을 떠올리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를 비껴 부는 소리를 듣고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학이 제 집을 버리고 / 반공에 솟아 뜰 듯'이라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② [B]: '팔월 보름달'을 '소선 적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달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팔월 보름달'을 '소선 적벽'에서 '가을 칠월'이 좋다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며 '달이 술위에 걸린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C] :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민 것 같다고 표현하며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 만수 천림을 꾸'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④ [D] : '늪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늪은 중'이 가서 화자가 머무는 곳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세계'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을 뿐,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⑤ [E] :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한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삼기실 때 무심할 리가 없음에도 시운이 변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 ㉠ 부귀(富貴)
- ㉡ 부귀(富貴)

① ㉠은 ㉡과 달리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둘 모두 과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은 현재 누리는 즐거움을, ㉡은 화자가 빈천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 ㉠은 화자가 자연에서 즐기는 감정이므로 추구하는 가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은 화자가 빈천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 ㉠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은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과 ㉡ 모두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상입니다. ㉠은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 화자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④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은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므로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 화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대상이고, 시의 전반적 분위기가 속세에서 벗어나 어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서 헛갈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달관적 태도'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이나, 화자는 '부귀'가 '빈천'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달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은 화자에게 즐거움을, ㉡은 화자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학습 활동>

활동 과제 : '나'가 말한 내용이 윤상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말한 내용	활동 결과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	⇒ ㉠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 ㉡
있이 매우 늦게 돌지만, 돌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 ㉢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	⇒ ㉣
밤나무의 성장함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	⇒ ㉤

① ㉠ : 윤상군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윤상군이 자신과 같은 속성을 지닌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불과 물이 자신과 비슷한 속성으로 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 : 윤상군이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윤상군이 벼슬에 늦게 나간 것이 마치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밤나무와 같다고 보는 글쓴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㉔: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 윤상군이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있어 매우 늦게 돌지만, 돌기만 하면 곧 그들을 쉽게 만드는 것은 윤상군이 늦은 나이에 벼슬에 올랐지만 빠르게 대신의 자리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④ ㉕: 등용된 윤상군이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등용된 윤상군은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오릅니다. 이는 주변의 도움 없이 하루 만에 성공한 것으로, 가지를 치지 않아도 무성히 뻗어 나가는 밤나무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⑤ ㉖: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은퇴하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성장함'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보 기>

작가는 화자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곧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①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며 '늪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늪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는 '허유'의 삶의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사를 인용한 것은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②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면서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말하는 화자를 통해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고 이야기하며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속세의 모습을 '험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③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망'하고 싶다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몰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함께 '망'기'하자고 이야기하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인간과 똑같은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백구'를 자신과 몰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나)에서 삶의 터전인 '어촌'을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나)에서 화자는 삶의 터전인 '어촌'을 바라보며 이러한 풍경이 마치 '무릉'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화자가 이상향인 '무릉'과 같이 '어촌'에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⑤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울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였음에도 등용이 늦었던 인물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울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한 것은 맞으나, 윤상군이 등용이 늦은 것을 비판하는 인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글쓴이인 '나'는 단지 윤상군이 늦게 등용되었음에도 빨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